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1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와 석종건 35사단장,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참석자들이 안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전북 안보와 발전에 '앞장'

전북도, 예비군의 날 기념 안보결의 다져… 창설의의 선양 · 표창장 수여

전북도는 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 등 민·관·군·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창설 제51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170만여 명 규모의 예비군 창설을 기념해 정부가 1970년 지정한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하진 도지사와 석종건 35사단장 등이 참석하여 안보결의를 다졌다.

전북대학교의 사물놀이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부대, 개인을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식과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메시지 대독을 진행했고, 예비군 대표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예비군 육성발전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전북도지사 부대 표창(2곳)에 무주군 무주읍대와 완주군 삼례읍대가, 전북도지사 개인 표창(10명)에 군산시 미성동대 군무사무관 김평현, 부안군 기동대 군무사무관 신병학, 남원시 아영운봉읍대 군무사무관 김종수, 익산시 특전예비군 중대 예비역중사 이종복, 106연대 2대대 군부주사보 윤경모, 103연대 4대대 군무주사보 김승환, 105연대 소령 정권필, 106연대 중령 나원대, 김제경찰서 경위 강성수, 정읍경찰서 순경 백광현씨가, 제35사단장 개인표창(4명)에 103연대 2대대 5급 김영국, 106연대 2대대 예비역중사 우은조, 제35보병사단 대위 김효정, 106연대 2대대 7급 정찬호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상(4명)은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홍경남, 103연대 군무원 한운섭, 105연대 군무원 이관종, 106연대 군무원 권오석씨가 수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향토예비군은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중요시설을 방호하고, 치안 문제를 지원하면서 재난 복구에 나서는 등 지역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후방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전라북도 안보와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폭염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한다

전북도, 1억7600만원 투입

4868개소 냉방기 점검 추진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올 여름(6~8월) 평균기온이 평년(23.3~23.9℃)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678.2~751.9 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올 여름 폭염기간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7,600만원을 투입해 5월까지 도내 모든 무더위쉼터 냉방기를 점검·보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시설, 마을회관 등 4,868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있고 폭염 대책기간(5.20.~9.30.)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무더위쉼터 점검·보수는 물론 냉방비를 지원하고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등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8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31.5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70대이상 고령자(32명)에서 67%가 발생한 것을 볼 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폭염피해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철 이전에 도내 모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완료하고, 필요시 야간 및 휴일에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시작으로 각종 폭염저감시설 점검 및 추가설치, TV·라디오 등에 대처요령 홍보 등 금년도 폭염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얍! 태권도 사범님, 사회공헌에 함께해요"

태권도진흥재단, 외국인 대상 태권도 교실 운영 · 지도 사범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고려인 청소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며 지도할 사범을 모집한다.

4월 말부터 주 1회(15주간) 진행하는 태권도 교실은 인천 고려인문화원(이하 문화원)과 중부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중부대)에서 실시되며 문화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4개국에서 온 고려인 청소년 31명을, 중부대에서는 베트남·중국 등 5개국 131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재단은 태권도교실에 함께 할 태권도 사범 5명을 14일까지 모집한다.

태권도 지도 경력과 사범 자격증, 공인 단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 사범은 지도법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별도의 지도자 교육을 태권도원에서 받은 후 태권도 교실 운영과 참가자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교실운영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고려인 청소년과 외국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고, 각국에도 태권도를 알리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태권도 교실 지도사범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 임중수 주임(063-320-0565) 또는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60+교육센터' 노인일자리 우수사업 선정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0+교육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60+교육센터 사업은 도내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역 및 직종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연계까지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2014년부터 6년 연속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0+교육센터에서는 실버바리스타 양성,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자격증발급), 사회적경제 취업지원(비영리기관 업무지원), 농촌일손도우미(농촌지역 작물, 과실 재배 및 수확과정), 제조서비스 현장관리원(제조생산 등 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 수목관리사(조경원) 6개 과정을 운영해 35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320명(91%)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되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도민들의 열기가 뜨거워 이들의 다양한 직무교육 희망 욕구를 파악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최용범 신임 행정부지사가 지난 5일 정읍 소재 아파트 공사장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주변에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재난 예방의 첫걸음"

최용범 신임 행정부지사, 아파트 공사장 안전점검 현장 방문

전북도 최용범 신임 행정부지사가 지난 5일 도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다음날인 5일 정읍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행정부지사 취임이후 처음 실시한 현장행정으로 건축, 토목 전문가를 비롯해 해당 분야 전공의 대학생점검단 20여명도 함께했다.

최 부지사는 이날 점검을 함께한 대학생점검단들에게 "내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재난 예방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시설 관리 및 점검관계자에게도 높은 안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